



해외 동향

□ 신종 코로나로 항공기 제조도 스톱

-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물류 문제로 A320과 A330의 최종 조립라인이 있는 중국 톈진 공장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
- 프랑스 항공방위산업체 사프란 역시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국 내 생산시설 20여 곳 가동 중단
- 에어버스는 공장 재가동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며 대체계획을 통해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 보잉, '777X' 첫 시험비행 성공

-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 '777X'가 4시간의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보잉은 비행 모습을 웹캐스트로 인터넷 생중계 함
- 보잉은 몇 차례의 시험비행을 거친 뒤 미연방항공청(FAA)에 승인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보잉은 이미 309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현지에서는 737맥스 기종의 연쇄 추락 참사 여파로 위기를 맞은 보잉이 은행으로부터 120억 달러(14조16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점차적으로 위기를 타개해나갈 것으로 기대



보잉 777X

- 기존 777모델 개량형
- 길이 76.8m, 트윈 엔진을 갖춘 대형 기종
- 2개의 통로, 접히는 날개로 주목
- 대당 가격은 약 4억 4,200만 달러 (약5,200억원)

□ 항공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 기발한 아이디어 쏟아져

- 최근 항공기 객실 인테리어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크리스털 캐빈 어워드(Crystal Cabin Award, CCA)에 출품된 아이디어가 공개되며 화제
- 보잉의 차세대 폴리머 코팅을 입힌 바이러스 방지 시트커버, 델프트 공과대학의 벤치와 침대가 배치된 캡슐 호텔식 좌석 디자인, 플로리다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의 헬멧 좌석, 독일 기업 헤인켈의 마주볼 수 있는 회전식 좌석 등 공간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아이디어가 화두
- 2007년 시작하여 올해 14회를 맞는 CCA에서는 새로운 기내 물품, 인테리어 아이디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셉트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3월 31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수상작 발표 예정

델프트 공과대학의 캡슐 호텔식 디자인



플로리다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의 헬멧좌석





국내 동향

□ 산업부-방사청, 무인기용 터보팬 국산화에 880억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미래 국방 무인기용 고성능 터보팬 엔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예산 880억원을 지원기로 함
- 터보팬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독자 기술 확보가 절실함
 - *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는 500kg 이상의 탄두와 300kg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에 의해 1987년 설립된 다자간 협약체로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
-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부품 개발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와 엔진 전반의 설계·제작·시험평가에 강점을 지닌 방사청의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대하고 감시정찰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

□ 신종코로나에 한국-중국 하늘길 88% 닫혔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가운데 2월 4일 기준 국내 항공사 8곳의 한국-중국 노선 100개 중 58개의 운항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25편이 감편되어 전체 비중의 88% 가량 축소
- 항공사에서는 추가 노선 중단과 감편을 검토 중이며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노선으로 확대될 전망
- 항공사들은 추가적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승무원 체류를 임시 중단하였으며 기내 및 정비장 등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 대책을 높이는 중
- 다만 중국은 운항 실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수권이 회수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



도내 동향

□ 중기부, KAI 등과 협약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남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항공산업의 첨단기술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
- 협약을 통해 중기부는 항공부품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표준모델을 개발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비용은 중기부 50%, 경상남도과 KAI가 각각 20%, 해당 중소기업이 10%를 분담하기로 함
- KAI는 협력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공급부품 계약단가를 100억 원 인상하고 금융권 융자 이자에 대해 최대 4% 이차보전을 지원할 뿐 아니라 2022년까지 협력사에 주는 물량 규모를 기존 2배 수준인 6,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
-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인프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회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왔으며 협약식에서 KAI를 11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

□ 하이즈항공, 보잉 자회사 ACM과 1379억원 규모 계약

- 하이즈항공은 말레이시아 보잉 자회사 ACM(Aerospace Composites Malaysia)과 1,379억 원 규모의 보잉 기종 부품 조립 및 가공 납품 계약 체결
- 이번 계약은 하이즈항공의 2018년 매출액 대비 300.56%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6년 말까지며, 지난해 12월 보잉과 인도 타타 그룹의 합작 계열사인 TBAL과의 계약에 이어 연속으로 수주 성공



관내 동향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3월 코스닥 상장 추진

- 2013년 설립된 항공 소재·부품 기업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2월 20~21일 공모주 청약 후 3월 초 코스닥 상장 예정
- 이번 상장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첫 '테슬라 상장'으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미래 수익을 추산하여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 * 테슬라 상장(이익미실현 상장)이란 당장 실적이 기업가치를 반영할 만큼 충분하지 않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을 때 시도되는 특례상장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수익성이 높은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3대 항공엔진 제작사인 프랫앤휘트니(P&W)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미국 법인을 통해 보잉, 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탑 티어를 상대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에는 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의 단독 운영권을 확보해 원자재 조달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전망

□ 샘코, 82억에 티에이치정밀 인수

- 항공기 부품 제조사 샘코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산업기계부품, 통신장비 부품 등을 생산하는 티에이치정밀 주식 14만 4000주(100%)를 양수
- 양수금액은 82억원으로 2018년 기준 총자산대비 11.63%, 자기자본대비 19.95%에 해당하며 전환사채 60억원 발행과 현금 22억원으로 취득할 예정

작성일	2020. 02. 06.(목)	보고일	2020. 02. 06.(목)
부서명	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이희진(055-831-3482)